

치 사

푸른 생명이 약동하며 우리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시간에 ‘고양시 덕양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게 되어, 축하와 치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력을 다해주신 고양시장님과 관계자, 그리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축원의 마음으로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푸른 물결이 온 산하에 번져가는 아름다운 절기와 같이, 오늘을 계기로 복지관과 고양시민이 항상 향기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뜻 깊은 오늘은 건강한 삶과 행복한 복지를 위해 헌신하신 최성 시장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넘어 사회복지의 모범을 이루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진력하시는 최성 시장님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생명의 존엄을 너무도 쉽게 훼손하고, 분별없는 욕망은 생태계의 안타까운 상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배금주의는 전통적인 윤리기준을 무너뜨리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생명존중 가치관에 따른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복지가 절실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읽어가며 사회통합과 중생구제라는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영역 곳곳에 불교계 모든 단체가 그 역할에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 조화와 균형, 안락한 삶과 모든 생명의 존엄이 인정되는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선선한 그늘로 막아주고, 밤에는 차가운 이슬을 넓은 앞으로 막아주었던 보리수나무처럼,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고양시민의 곁에서 늘 함께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희망을 이루어가는 도반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널리 전파하기를 바라며,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함께 실천하면서 공덕을 짓고 또 다시 사회와 이웃에게 나누어 가는 희망의 시간들이 환하게 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5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